

## 넥센타이어, 유럽 전시회서 금·은상 차지

넥센타이어가 유럽 최대의 타이어전시회인 제 9회 <Tires & Rubber 2006>에서 금상과 은상을 동시에 차지했다.

넥센타이어는 3월13-1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<Tires & Rubber 2006>에서 수출 주력제품인 N2000과 로디안HT 2모델이 각각 금상과 은상을 휩쓸어 국내 타이어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.

박람회에는 넥센타이어와 한국타이어, 금호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를 비롯해 Goodyear와 Michelin, Bridgestone 등 세계 25개국에서 106개 기업이 참가했다.

넥센타이어 관계자는 “수상을 통해 신형 타이어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질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또 “러시아와 동유럽에만 2005년 24만여개의 타이어를 수출했다”며 “박람회 수상을 계기로 2006년 수출목표를 40만개 이상으로 책정했다”고 밝혔다. (서울=연합뉴스 김상현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3/31>